



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과 제언

오 병 국 (연구위원)

2023.3.13.



목 차

I. 보험산업의 규모 및 성장성

II. 보험회사 해외진출 현황

III. 보험회사 해외진출 평가 및 제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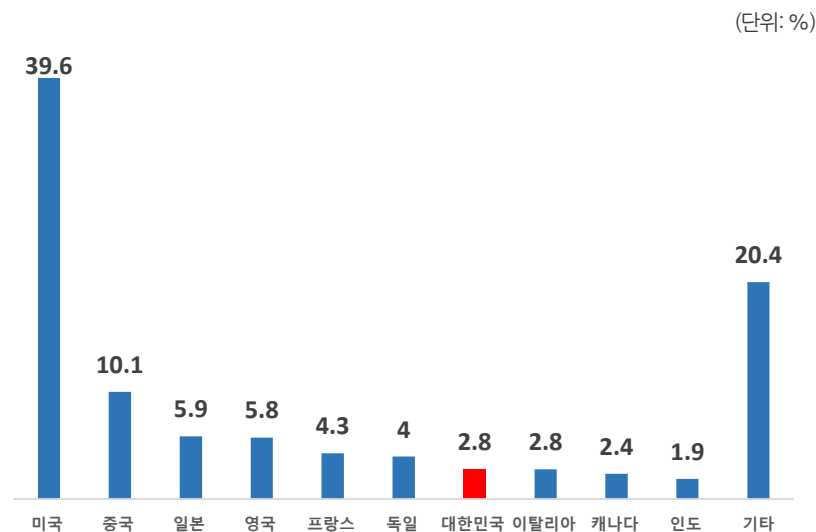


보험산업의 규모 및 성장성

1-1. 시장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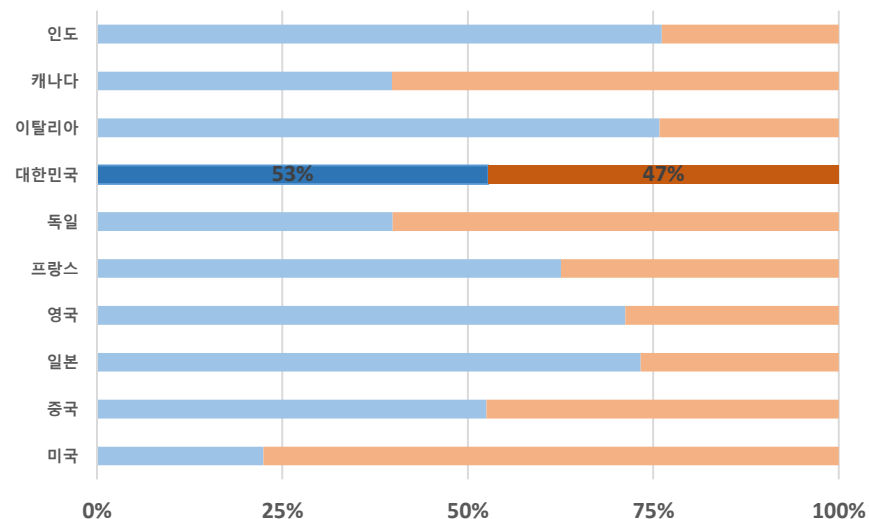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의 보험 시장 규모는 전세계 7위에 위치
 - 전세계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.8%
- 우리나라 보험 시장 내에서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
 - 생명보험: 53%, 손해보험: 47%

전세계 보험시장 국가별 점유율(2021년 기준)



자료: Swiss Re(2022)

국가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비중(2021년 기준)



자료: Swiss Re(20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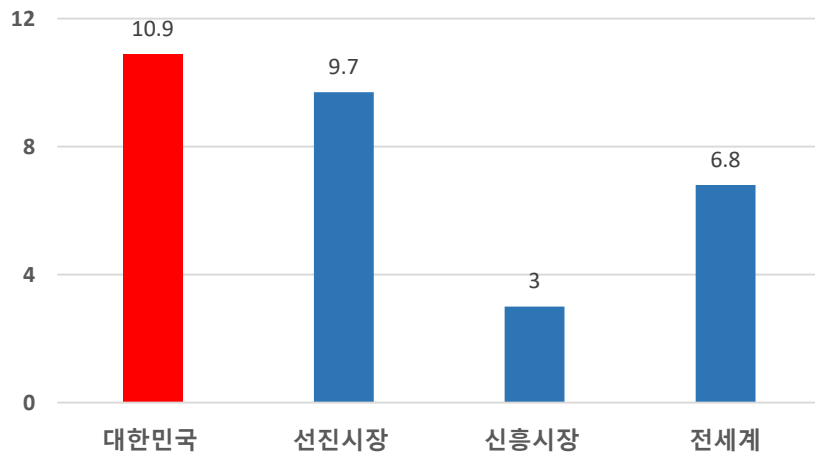
1-2. 경제 규모 및 인구 대비 보험시장 규모

- 경제 규모 및 인구 대비 보험시장 규모가 선진시장에 근접한 수준

- GDP 대비 보험료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룹에 해당
- 1인당 보험료는 선진시장 수준에 근접

GDP 대비 보험료(2021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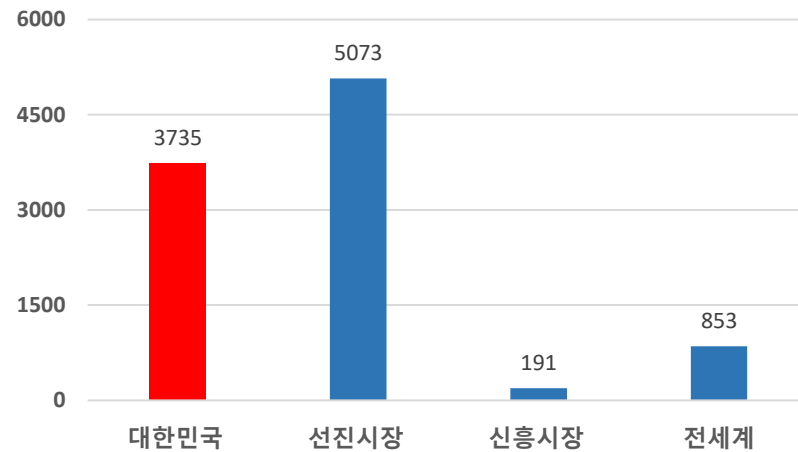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Swiss Re(2022)

1인당 보험료(2021년 기준)

(US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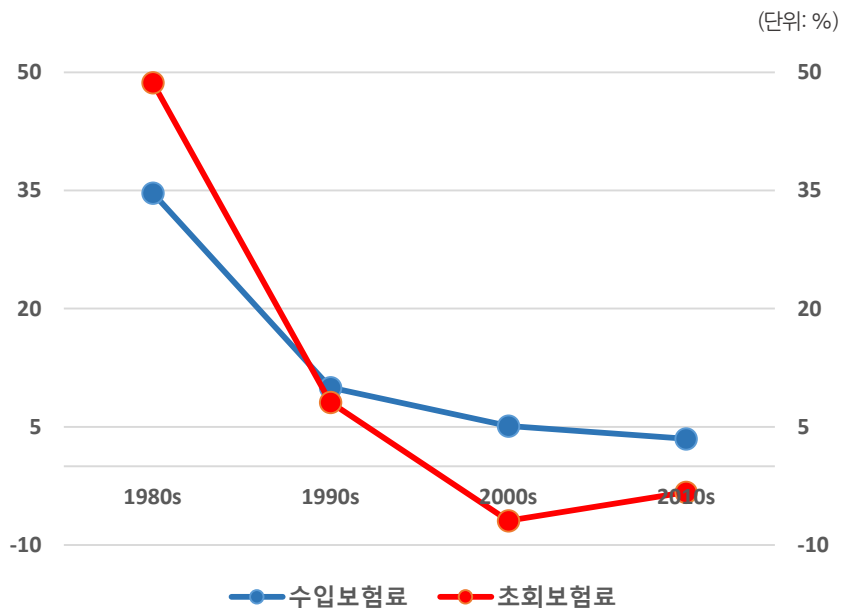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Swiss Re(2022)

2-1. 성장성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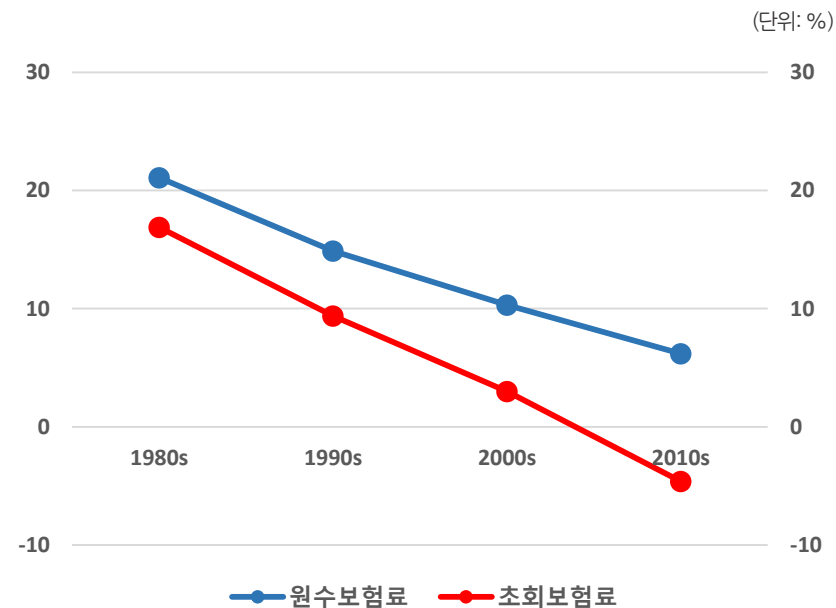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, 손해보험 모두 성장성이 하락한 상태
 - 성숙시장으로의 진입과 저성장 환경 지속으로 성장세 하락

생명보험 성장률 추이



자료: 보험개발원

손해보험 성장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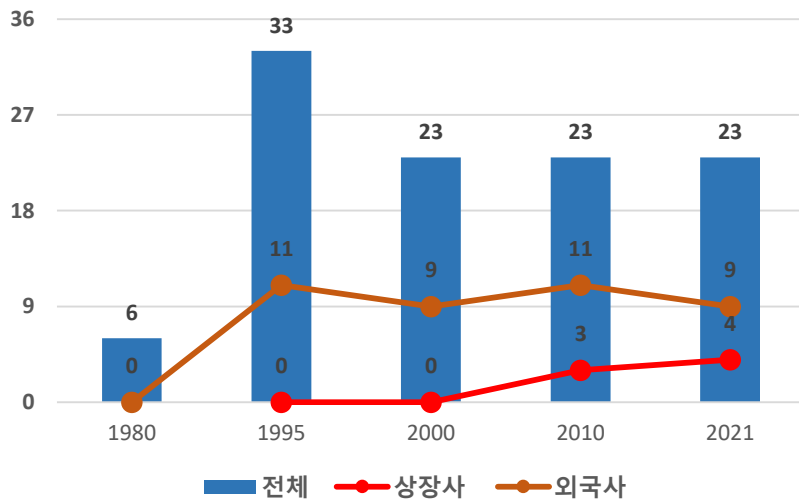
자료: 보험개발원

2-2. 보험회사 수 추이

- 생명보험, 손해보험 모두 시장의 역동성이 저하된 상태
 - 2021년말 기준 총 보험회사 수는 54개(생명보험 23개, 손해보험 31개)
 - 2000년 이후 생명보험 회사 수의 변화가 없음
 - 2000년 이후 손해보험 회사 수의 증가세는 대부분 외국계 재보험회사의 진입에 의해 발생

생명보험회사 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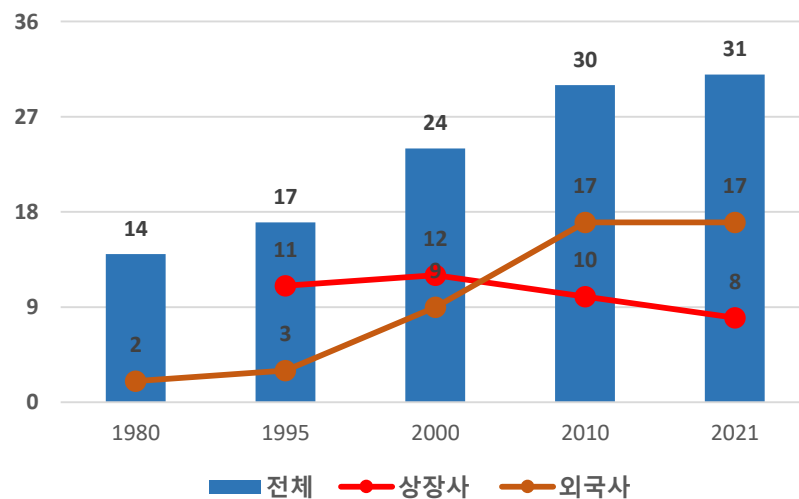
(단위: 개)



자료: 김현수(2021);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손해보험회사 수 추이

(단위: 개)



자료: 김현수(2021);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

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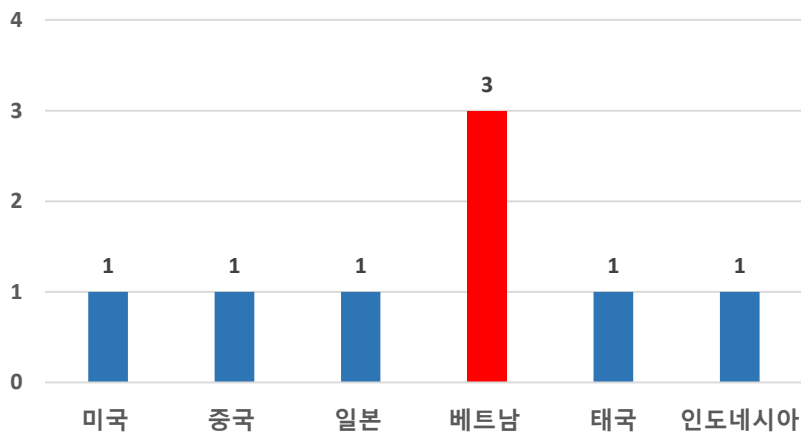
보험회사 해외진출 현황

1-1. 해외점포 국가별 운영 현황

- 2021년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4개 회사가 8개의 해외 점포 운영
 - 베트남(모두 현지법인) 점포 다수
- 2021년말 기준으로 손해보험 7개 회사(보증보험 및 재보험 포함)가 30개의 해외 점포 운영
 - 미국(5개 현지법인, 5개 지점) 점포 다수

생명보험(2021년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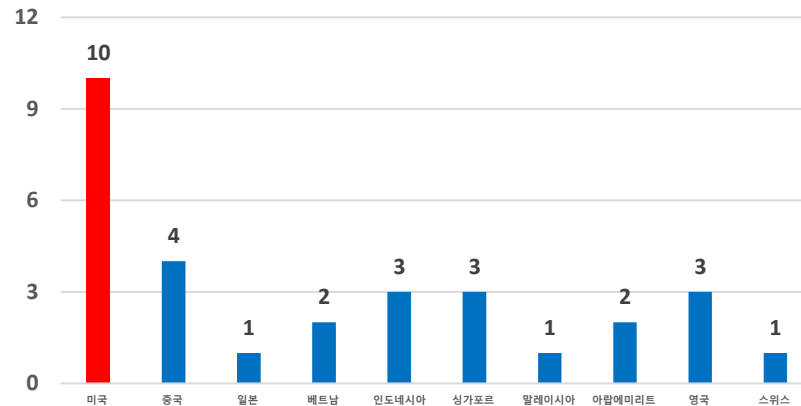
(단위: 개)



자료: 금융감독원

손해보험(2021년말 기준)

(단위: 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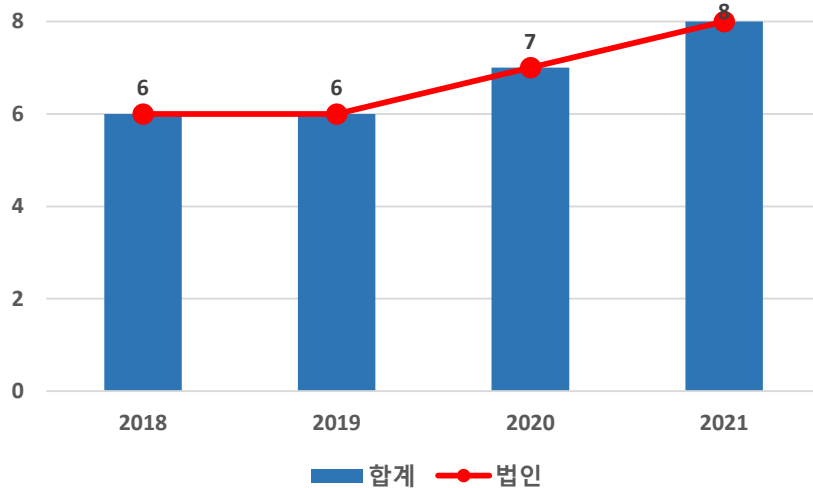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

1-2. 해외점포 형태별 운영 현황

- 생명보험의 경우 모두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
 - 2020~2021년 기간 중 2개의 점포가 베트남에 신규 진출
- 손해보험의 경우 현지법인 및 지점으로 운영
 - 현지법인 형태로 주로 운영

생명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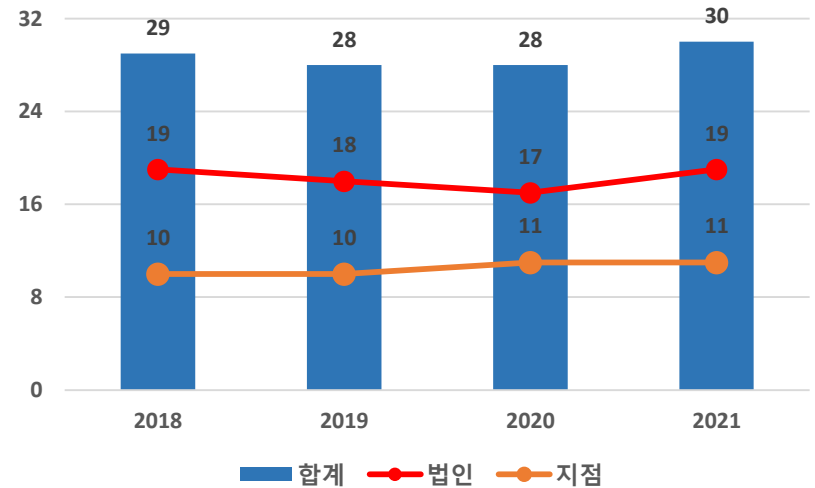
(단위: 개)



자료: 금융감독원

손해보험

(단위: 개)


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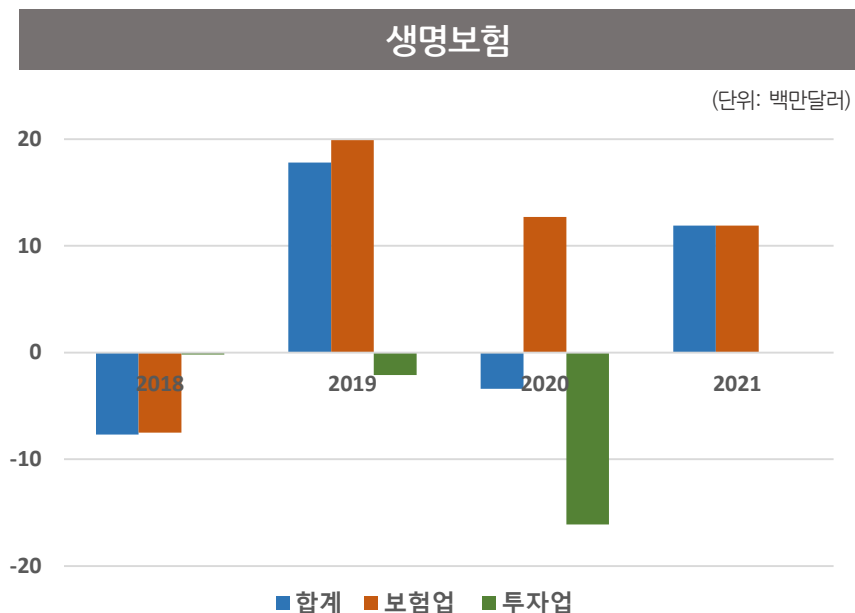
2. 손익 현황

·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의 큰 변동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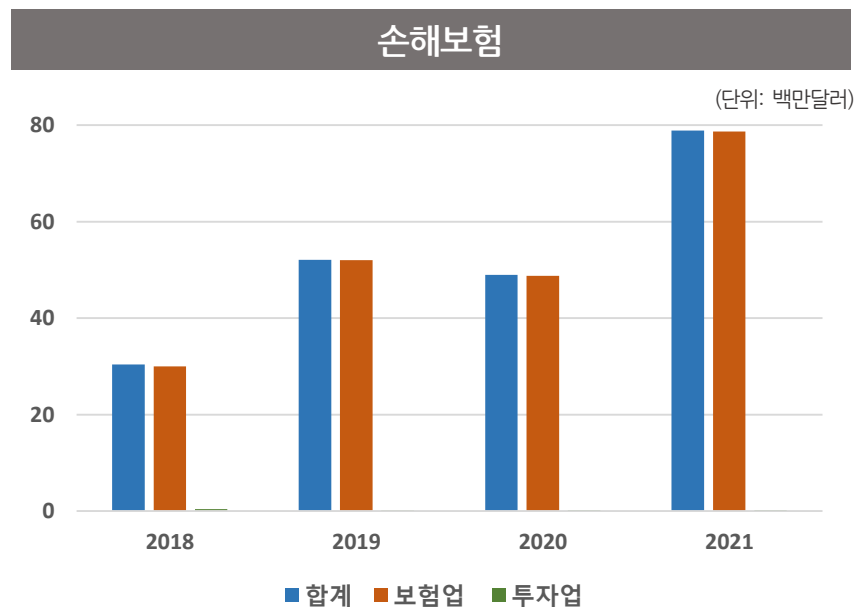
- 최근 들어 보험영업 당기순이익은 흑자
- 2021년말 부동산입대업 법인 임대료 개선 등으로 투자순이익 개선

·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의 지속적인 흑자

- 미국 진출 해외점포의 보험료 상승 및 사업영역 확장 등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에 기인



자료: 금융감독원


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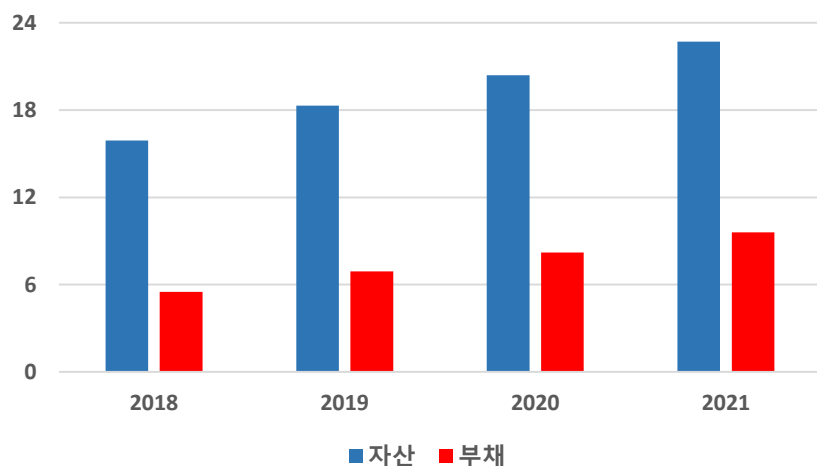
3. 재무 현황

· 생명보험, 손해보험 모두 자산 및 부채의 증가세

- 자산의 증감은 점포 설치 및 청산, 보험금 지급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음
- 부채 증감은 보유계약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보험미지급금 증감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음

생명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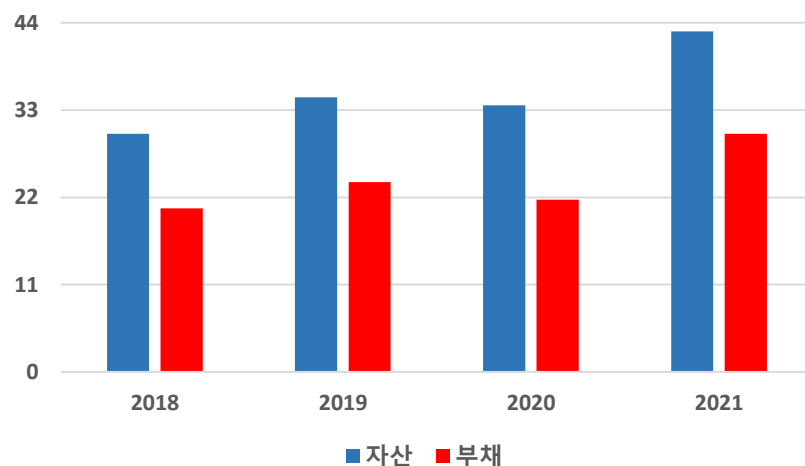
(단위: 억달러)



자료: 금융감독원

손해보험

(단위: 억달러)



자료: 금융감독원



III

보험회사 해외진출 평가 및 제언

1. 보험회사 해외진출 평가

- **국내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로 인해 신성장동력 확보수단으로서 보험회사 해외진출 유도**
 - 정부 동북아 금융허브 비전에 따라 2005년 전후로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확대
 - 현재 중국,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국가에 주로 진출
- **대형 보험회사 위주로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신성장동력으로 평가하기엔 미흡**
 - 2021년 말 자산은 65.6억달러(7.8조원)로 해외진출 보험회사 총자산의 0.8%
 - 2021년 말 당기순이익은 90.8백만달러(1,039억원)로 해외진출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의 2%
 - 베트남,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점유율이 미미
- **해외 현지 사업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핵심역량 부재와 미흡한 사업비용관리**
 - 진출국가와 진출방식은 현지에서 경쟁하는 외국계 보험회사들과 유사한 조건
 - 경영관리 비용, 정보 비대칭성, 현지 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유발되는 해외사업 비용에 대한 관리 역량 미흡

2-1. 전략적 제언

· 현지에 적합한 상품개발 및 판매채널 전략을 통한 핵심역량 확보

- 진출 국가의 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, 보험수요 변화 등을 분석하여 현지 시장에 적합한 보험상품 개발 역량 확보
-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판매채널 구축과 관리를 통해 현지에서의 영업경쟁력 확보

· 진출시장과 진출방식의 신중한 선정

- 개발도상국 진출 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, 보험인프라의 부족으로 어려운 비용관리 가능성
- 현지 기업의 인수 및 합병, 해외직접투자, 합작법인설립 등 다양한 진출 방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

· 현지 진출 제조기업과의 협력 강화

- 현지에 진출한 제조업 부문 계열사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절감
- 중국, 베트남,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제조업 부문 계열사로부터 이익 창출

· 사업다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

- 자산운용 및 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현지 금융회사 인수를 통해 금융사업 다각화 추진
- 사업다각화가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킬 경우 비용감소로 인해 수익 제고 가능

2-2. 정책적 제언

•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급여력제도 개선

- 현재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경우 지급여력기준 금액에 해외 사업 관련 위험분산 효과 미반영
- 해외사업을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위험을 지역적으로 분산할 경우, 위험분산 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

• 해외진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확충 수단 다양화 지원

- 연결 지급여력제도 특징상 해외투자 시 지급여력비율의 하락 가능성 존재
-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자본확충 수단 다양화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규제 일부 완화

• 국내 보험관련 전문자격의 국제화 지원

-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가들의 보험 전문인력 부족은 현지 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
- 국내 보험관련 전문자격의 국제화를 통해 해외 현지 보험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소

• 해외 현지 금융당국과의 소통 강화

- 현지 은행과 방카슈랑스 제휴 체결 시 은행의 과도한 독점계약 수수료 및 선지급 수수료 요구 등 사례 존재
- 해외 보험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현지 금융당국에게 규제의 필요성 전달

감사합니다.